

나지완, 거포 부활을 외치다

타격폼 바꿔 한방 장착...올 KIA 우승 이끌겠다
 명예회복위해 군입대 미루고 혹독한 겨울나기

“한국시리즈 끝내기 홈런은 커다란 축복이자 넘어야 할 산이다. 신인의 자세로 2011시즌을 맞이하겠다.”

KIA 타이거즈의 ‘거포’ 나지완이 자존심 회복을 위한 독한 겨울을 예고했다.

2009년 프로야구의 대미를 장식한 짜릿한 끝내기 홈런의 주인공 나지완은 지난 시즌 0.215의 타율과 함께 15홈런 53타점을 만들었다. 2009년 풀타임을 소화하며 한국시리즈 우승의 주역이 됐던 나지완의 명성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성적이다.

나지완은 “지난해 초반 컨디션도 좋고, 감도 좋았다. 그러나 자만심과 야심만만함 대표 선발에 대한 부담감으로 너무 빨리 무기력해졌다. 후반 페이스가 관촬아졌을 때는 무릎 부상이 왔다”며 “끝내기 홈런을 생각하면 아직도 꿈만 같

고 내가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다는 것이 영광스럽다. 하지만 그 홈런으로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으면서 자만해졌고 좋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고 지난 시즌을 평가했다.

올해로 스물 일곱이 되는 프로 4년차 나지완이 군입대를 미루고 다시 한 번 방망이를 든 것은 지난해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다.

나지완은 “2010시즌의 고비를 넘었다면 더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었을 거라는 후회를 많이 했다. 4강의 꿈을 접어야 했던 아쉬움도 커서 군입대를 미뤘다. 실패를 발판 삼아 2011년을 나지완의 해, KIA의 해로 만들고 싶다”고 올 시즌 포부를 밝혔다.

KIA를 대표하는 확실한 거포로 입지를 굳히겠다는 각오지만 어느해보다 치열한 외야 경쟁이 벌어지면서 ‘주전 쟁탈전’은 불가피할 전망

이다. 지난 시즌 발전 가능성을 보여준 신종길·최훈락·김다원·이영수 등과 함께 노련한 이용규·김민섭·이종범이 외야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85년생 동갑내기 오른손 거포 김주형이 군 복무를 마치고 복귀를 하면서 ‘2차 거포 전쟁’도 벌어야 한다.

나지완은 “당장 라인업에 들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을 만큼 뜨거운 외야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또 (김)주형이가 돌아와서 다시 경쟁구도가 형성됐다. 친구로서 주형이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지만 선의의 경쟁을 벌여야 한다. 팀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경쟁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무리 캠프에서 체중감량에 성공한 나지완은 스타라이드 폭을 즐기고 들어올리는 발의 높이를 낮췄다. 정교함을 더하기 위한 변화다. ‘나로또’가 아닌 꾸준한 한방을 장착하기 위한 나지완의 도전은 오는 16일 일본 스프링캠프에서 본 궤도에 오르게 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정몽준 FIFA부회장 낙선

집행위원 자격도 상실

정몽준(60)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이 국제축구연맹(FIFA) 부회장 5선에 실패했다.

정몽준 명예회장은 6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의 셰라톤호텔에서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총회 FIFA 부회장 선거에서 알리 빈 알 후세인 요르단 왕자에 저 낙선했다.

총 투표수 45표 가운데 정몽준 명예회장은 20표를 얻어 25표의 알 후



세인 왕자에 패했다.

1994년 처음 FIFA 부회장에 당선됐던 정몽준 명예회장은 이로써 FIFA 부회장과 집행위원 자격을 모두 잃었다. 앞서 열린 AFC 회장 선거에서는 단독 출마한 모하메드 빈 함맘(카타르) 현 회장의 연임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카타르 아시안컵 축구 내일 개막

한국 51년만에 우승 노려

제15회 아시안컵 축구대회가 8일(이하 한국시간) 카타르와 우즈베키스탄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30일 결승전까지 23일간 열전에 돌입한다.

조광래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왕의 귀환, 아시아의 자존심’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1960년 제2회 대회 이후 무려 51년 만에 패권 탈환에 나선다.

◇8강부터 토너먼트=이 대회는 모두 16개 나라가 출전해 4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벌인다. 각 조 상위 2개 나라가 8강에 올라 이후로는 토너먼트로 우승국을 가른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40위인 한국은 바레인(93위), 호주(26위), 인도(142위)와 함께 C조에 속했고 개최국 카타르(114위)는 쿠웨이트(102위), 중국(87위), 우즈베키스탄(109위)과 함께 A조에서 조별리그를 치른다. 사우디아라비아(81위), 일본(29위), 요르단(104위), 시리아(107위)가 B조에서 8강 진출을 다투고 D조는 지난 대회 우승팀 이라크(101위)를 비롯해 이란(66위), 북한(108위), 아랍에미리트(105위)로 구성됐다.

◇51년만의 우승도전=한국은 그동안 아시아에서 ‘축구 최강’으로 자처해왔지만 정작 아시아 최강을 가리는 아시안컵에서는 1956년과 1960년에 열린 1,2회 대회에서 연속 우승한 뒤로는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 1988년 카타르에서 열렸던 9회 대회 결승에서 사우디아라비아에 승부차기 끝에 패

한 뒤로는 결승에도 오르지 못했다.

◇주요 우승 후보국=한국과 이번 대회 우승을 놓고 다들 나라는 역시 FIFA 순위에서 한국보다 앞서는 호주, 일본과 중동의 강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등이 꼽힌다. 오세아니아 축구연맹에서 AFC로 편입된 이후 2007년 대회 이후 두 번째로 아시안컵에 출전한 호주는 8강에서 일본과 승부차기 끝에 저 4강에도 오르지 못했다.

◇2011 아시안컵 축구대회 주요 일정(한국시간)=▲개막전 카타르-우즈베키스탄(8일 1시15분·칼리파 스타디움) ▲한국-바레인(11일 1시15분·알가라파 스타디움) ▲한국-호주(14일 22시15분·알가라파 스타디움) ▲한국-인도(18일 22시15분·알가라파 스타디움) ▲결승전(30일 0시·칼리파 스타디움) /연합뉴스

MBC 등 주요경기 생중계

케이블 위성 스포츠 전문 채널인 MBC스포츠플러스가 2011 아시안컵 축구대회 경기를 모두 중계한다. MBC스포츠플러스는 오는 8일 새벽 1시(이하 한국시간) 카타르와 우즈베키스탄의 대회 개막전을 시작으로 30일까지 열리는 32경기 전 경기를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를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한편 SBS는 지상파 SBS TV와 케이블 채널 SBS ESPN을 통해 한국 경기와 북한 경기 등 아시안컵 주요 7경기를 생중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왕중왕전’ 현대챔피언스 오늘 티샷

집 플릭(미국)이 6일 하와이에서 열린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개막전인 ‘현대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프로암대회에서 샷을 하고 있다. 지난해 PGA 투어에서 우승을 맞은 선수들만 출전하는 이번 대회에는 제프 오길비(호주)의 2연패가 기대되는 가운데 US오픈 우승자인 그레엄 맥도웰(북아일랜드)을 비롯해 어닐 엘스(남아프리카공화국), 이안 풀터(잉글랜드) 등이 112만달러(12억6000만원)의 우승 상금을 놓고 경쟁한다. 한국계 선수로는 지난해 4월 셀 휴스턴 오픈에서 우승했던 앤서니 김(26·나이지리아)이 유일하게 참가한다.

/연합뉴스

古家 고향의 맛
고가약소리탕

신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고객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동안 고가한식 뷔페를 찾아 주신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2011년 1월 4일부터 **약소리탕** 전문점으로 변경하여 새롭게 모시겠습니다.

고객님 한분 한분의 건강을 소중히 생각하며 더욱 정성스럽게, 더욱 친절하게 모실것을 약속드립니다.

점/심/특/선

오리탕 5,000원

11:30~1시 까지

약소리탕

1마리 36,000원

반마리 18,000원

1인분 9,000원

고가약소리탕

예약문의 062)226-8254

관광호텔 **예술의 전당**

OPEN 기념!

객실(1박)+조식뷔페2인 포함 (양식,한식 20가지)

50% 할인된 가격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충별시설안내

5F 벨라지오흔(웨딩홀) 카네기홀(연회장)

4F 객실, 신부대기실

3F 객실

2F 객실, 윌트니스센터

1F 프런트, 커피숍, 비즈니스센터, 회의실, 연회상당실

BF1 대연회장, 페백실

***비즈니스맨을 위한 전문호텔 *전객실 인터넷 사용**

객실예약 | (062) 600-9999 예식연회예약 | (062) 362-0011,0022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동 1261번지(상무지구 물센터 옆) | www.hotelarthall.co.kr